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2, No. 8 pp. 433-442, 2021

https://doi.org/10.5762/KAIS.2021.22.8.433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지지가 대인관계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성의 매개효과-

송경미, 조성제*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Interpersonal Competence perceived by Crisis Adolescent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Expressiveness

Kyeng-my Song, Sung-je Cho*
Department of Culture and Arts Contents, 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위기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대인관계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및 정서표현성의 매개효과에 대하여 파악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U광역시의 위기청소년 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위계적 매개효과 분석과 Sobel's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지지가 대인관계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인 '교사의 지지'는 대인관계유능성의 두 개 하위요인(관계 형성 및 개시, 갈등관리)에, '또래집단의 지지'는 대인관계유능성의 다섯 개 하위요인 모두(관계 형성 및 개시,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 타인에 대한 배려, 갈등관리, 적절한 자기개방)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지지의 '교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유능성의 '관계 형성 및 개시'와 '갈등관리'가, '또래집단의 지지'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유능성(관계형성 및 개시,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 타인에 대한 배려, 갈등관리, 적절한 자기개방)이 향상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지지가 정서표현성을 경유하여 대인관계유능성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위기청소년인 경우, '교사의 지지'와 '또래집단의 지지'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며, 이를 활용하여 위기청소년의 대인관계유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전문상담서비스의 개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위기청소년의 비행예방에 주요요인인 대인관계유능성의 발달을 위해 사회적지지의 강화와 정서표현성을 통한 전략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research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the interpersonal competence of crisis adolescent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expressiveness in such relationships. The subjects were 130 crisis adolescents in U city. The statistical program R was used for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for mediating effect and the Sobel test. First, the results showed that 'teacher's support'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the two factor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relationship formation and initiation, conflict management) and 'peer support'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interpersonal competence (relationship formation and initiation, assertion about rights or displeasure, consideration for others, conflict management, appropriate self-opening). This means that greater 'teacher's support' was associated with greater levels of 'relationship formation and initiation' and 'conflict management' and greater 'peer support' was associated with higher scores in all five factor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social support improved interpersonal competence through emotional expressiveness. Taken together, to improve interpersonal competence which is a major factor for preventing juvenile delinquency, the development of curricular programs and constant professional counseling services are necessary, and measures should be taken through emotional expressiveness.

Keywords : Crisis Adolescents, Interpersonal Competence, Social Support, Emotional Expressiveness, Mediating Effect

*Corresponding Author : Sung-je Cho(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
email: chosj715@daum.net
Received May 7, 2021 Revised June 14, 2021
Accepted August 5, 2021 Published August 31, 2021

1. 서론

현대사회는 자본주의가 심화되며 부의 양극화에 따른 급격한 사회 · 문화적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개인주의, 핵가족화, 가족 간 소통의 단절, 우울, 소외,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가정불화와 해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발생되는 결손 · 빈곤가정의 청소년들은 건강한 사회로 진입하지 못하고 가난, 비행, 탈선 등이 대물림되고 있다. 청소년기는 많은 변화에 적응하며 정체성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위기상황에 노출되기도 한다. 물론 청소년을 위기 상태에 이르게 하는 요인들은 청소년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 안에서 부모의 이혼, 또래, 학교, 비행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포함하고 있다[1,2]. 위기청소년이란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외부의 위협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든 어려움에 처해있어 개인적·가족적·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의미한다[3]. 이러한 위기청소년은 부정적 자아개념과 낮은 자존감, 반복적인 욕구좌절로 인한 무기력하고 충동적인 정서를 보이게 된다[4].

이러한 결과는 학교와 가정에서 보호 받지 못하고 학교·가정문제, 대인관계의 미숙 등으로 위기를 겪는 위기청소년들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울, 분노, 심리적 불안, 열등감, 무기력 등 위기청소년의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특히, 대인관계에서 유능감을 경험할 때 청소년들이 삶의 만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5].

대인관계유능성은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6,7]. 대인관계유능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위기청소년의 대인관계유능성은 사회적지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청소년들이 긍정적 정서조절을 하게 될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하여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주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기 때문이다[5]. 또한 대인관계유능성은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관련되어 개인의 행복감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8]. 특히 대학생의 사회적지지가 대인관계유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9]. 따라서 위기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돕고 위기를 극복할 자원을 지원하기 위해 대인관계유능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지지와 대인관계유능성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지지의 범주 안에 있는 가족지지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지지가 대인관계문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었는데 홍구표[10]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가족지지는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박미하[11]는 인문계 고등학생의 사회적지지와 사회적 유능성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이는 청소년의 발달과정에 있어 사회적지지가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특히 위기청소년 대상으로의 사회적지지 요인 측면에서 대인관계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해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의 어려움을 돕고 계속적으로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해 가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위기청소년의 대인관계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표현성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서표현성이란 "유기체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심리상태를 언어와 비언어를 통하여 표현하는 개인의 정서표현방식"이다[12,13]. 장은혜와 이동귀는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표현성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정서표현성은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부분매개 한다고 하였다[14]. 또한 강유선[15]은 남자 중학생의 공감이 정서표현성을 매개로 하여 또래관계 질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할 때, 정서표현성이 대인관계유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서표현성 측면에서 대인관계유능성에 대해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기청소년의 심리 · 사회적 어려움을 줄여가고 계속적으로 건강한 성장과 조화로운 발달을 유도하기 위해 정서표현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통해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지지가 대인관계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기존연구에서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환경, 사회적지지와 관련된 사례연구가 일부 진행되었지만, 위기청소년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 및 대인관계유능성과 정서표현성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지지와 대인관계유능성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성의 매개효과를 밝힘으로써 위기청소년의 성장과정에 위기상황으로 인해 수반되는 사회적응의 스트레스 문제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위기청소년의 지각한 사회적 지지, 대인관계유능성, 정서표현성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있다.

또한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있어 대인관계능력의 주요요인인 대인관계유능성을 중심으로 사회적지지의 영향력과 이 두 변수들 간에 매개변수를 투입하여 그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위기청소년의 대인관계유능성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종속변수는 대인관계유능성, 독립변수로는 사회적지지를, 매개변수로는 정서표현성을 선정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청소년의 지각한 사회적지지, 대인관계유능성, 정서표현성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위기청소년의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대인관계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셋째, 위기청소년의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대인관계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표현성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U광역시에 소재한 청소년보호기관으로 N구의 상담센터 8곳 중에서 Y, L, W 상담센터 세 곳을 임의표집하여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2020년 12월 22일부터 2021년 1월 19일까지 설문조사하였다. 설문지의 배포는 해당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조사대상자에게 설문조사 실시 전에 설문취지와 설문지 작성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자기기입식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자료는 147부를 배포하여 회수되지 못했거나 일부 답변이 누락된 17부를 제외한 130부를 수집하여 연구 분석에 활용하였다.

2.2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빈도분석과 측정변수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신뢰도 검사를 위해 Cronbach's α를 사용하였다. 측정변수들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인 사회적지지가 대인관계유능성에 미치는 영향과 정서표현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과 유의성 검정을 위해 Sobel's test를 사용하였다.

2.3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대인관계유능성 , 사회적지지, 정서표현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2.3.1 대인관계유능성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유능성의 측정을 위해 Buhrmester 외[16]의 대인 유능성 질문지(ICQ: 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를 한나리와 이동귀[7]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K-ICQ) 31개의 설문문항을 최은정[17]의 연구에서 적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개의 하위요인으로써 '관계 형성 및 개시(8문항),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7문항), 타인에 대한 배려(7문항), 갈등관리(6문항), 적절한 자기 개방(3문항)'[17]으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리커트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유능성이 향상됨을 의미한다. 최은정[17]의 연구에서는 전체 척도의 Cronbach's α는 .93, 하위요인의 Cronbach's α는 각각 .89, .83, .84, .79, .63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척도의 Cronbach's α는 .97이었고, 하위요인별로는 관계형성 및 개시 .92,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 .88, 타인에 대한 배려 .91, 갈등관리 .88, 적절한 자기개방 .75로 나타나 신뢰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6이상을 만족하므로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2.3.2 사회적지지

본 연구에서 사회적지지는 부모의 지지 9문항, 또래집단의 지지 9문항, 교사의 지지 9문항 등 세 개의 하위요인과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지지 척도 가운데 부모의 지지와 또래집단의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Nolten[18]의 부모의 사회적지지 부분과 또래집단의 사회적지지 부분을 활용한 부정민[19]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교사의 사회적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Straus[20]가 개발한 교사의 사회적지지 부분을 활용한 부정민[19]의 척도를 김혁주[21]의 연구에서 적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 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혁주[21]의 연구에서 하위요인의 Cronbach's α는 부모의 지지 .95, 또래집단의 지지는 .91, 교사의 지지는 .94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지지 전체문항에 대한 Cronbach's α값은 .96으로써 신뢰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각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값은 부모의

지지는 .94, 또래집단의 지지는 .92, 교사의 지지는 .91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6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측정도구에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2.3.3 정서표현성

본 연구에서는 Gross와 John[22]이 개발한 버클리 정서표현성 척도인 22문항을 홍창희와 한규석[23]이 한국성인의 정서표현에 맞게 타당화한 척도로써 최은숙[24]의 연구에서 적용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정서표현성 척도는 정서표현에 대한 개인차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검사로 총 16문항이다[24]. 리커트 7점 척도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표현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최은숙[24]의 연구에서는 전체 척도의 Cronbach's α는 .89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표현성 척도의 Cronbach's α는 .85로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6 이상을 만족하므로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각 측정도구의 구성과 신뢰도 계수는 다음의 Table 1과 같다.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의 Table 2와 같다. 위기청소년은 총130명으로 성별은 남자 40명(30.8%), 여자 90명(69.2%)으로 조사되었다. 학력은 중학교 재학 32명(24.6%), 중졸 2명(1.5%), 고등학교 재학 94명(72.3%)이며, 고등학교 자퇴 2명(1.5%)으로 나타났다. 동거인은 부모 115명(88.5%), 한부모 10명(7.7%), 조부모 5명(3.8%)으로 확인되었다. 위탁기관은 청소년 문화센터가 59명(45.4%), 사랑의 교실 52명(40%), Wee 가정형 센터가 19명(14.6%)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시간은 매일 방과 후 13명(10.0%), 10시간 111명(85.4%), 6개월 4명(3.1%)이며, 2년 2명(1.5%)으로 파악되었다.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ategorical Variable		Frequency (N)	Percentage(%)
Gender	① Male	40	30.8
	② Female	90	69.2
Education	①Enrolled in middle school attendance	32	24.6
	②Graduated from middle school	2	1.5
	③Enrolled in high school	94	72.3
	④Withdrawn from high school	2	1.5
living. with	①Both Parents	115	88.5
	②One parent	10	7.7
	③Grandparent	5	3.8
center which	①Youth Cultural Center	59	45.4
	②Class of love	52	40.0
	③Wee home-style center	19	14.6
center duration	①Every day after school	13	10.0
	②10 hours	111	85.4
	③6 months	4	3.1
	④2 years	2	1.5
Total		130	100.0

Table 1. Composition of measurement tool and reliability coefficient

Factor			Number of questions	Question Number	Cronbach's α	
Independent variable	Social support	Parental support	9	1~9	.94	.96
		Peer support	9	1~9	.92	
		Teacher support	9	1~9	.91	
Dependent variable	Interpersonal competence	Relationship formation and initiation	8	1, 5, 9, 12, 17, 19, 23, 28	.92	.97
		Voicing of rights or displeasure	7	2, 6, 10, 13, 20, 24, 29	.88	
		Caring for others	7	3, 15, 21, 22, 25, 26, 30	.91	
		Conflict Management	6	4, 8, 16, 18, 27, 31	.88	
		Proper self-opening	3	7, 11, 14	.75	
Parameter	Emotional Expressiveness		16	1~16 (3*, 8*, 9*)	.85	
Total number of questions			74			

* a reverse scoring question

3.2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정서표현성, 대인관계 유능성 정도

각 요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모든 요인의 표본크기는 130명이었으며, 사회적지지는 5점 총점기준에서 총 평균은 3.45, 부모의 지지 평균 3.41, 또래집단의 지지 3.53, 교사의 지지 3.42, 대인관계유능성은 5점 총점기준에서 평균 3.33으로 나타났다. 정서표현성은 7점 총점에서 평균 4.37로 확인되었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for each factor

Factor		Sample size	Aver age	Standard deviation
Social support	Social support	130	3.45	0.63
	Parental support	130	3.41	0.81
	Peer support	130	3.53	0.67
	Teacher support	130	3.42	0.63
Interpersonal competence	Interpersonal competence	130	3.33	0.70
	Relationship formation and initiation	130	3.35	0.74
	Voicing of rights or displeasure	130	3.30	0.72
	Caring for others	130	3.36	0.75
	Conflict Management	130	3.34	0.73
	Proper self-opening	130	3.30	0.80
Emotional Expressiveness		130	4.37	0.65

3.3 상관관계

각 측정변수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Table 4와 같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대인관계유능성의 하위요인인 적절한 자기개방과 정서표현성의 관계만 제외하고 사회적지지, 정서표현성, 대인관계유능성 모두가 서로 유의미한 긍정적 상관관계($p<0.001$)를 보였다. 이는 연구자가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변수의 방향성이 연구결과와 일관되어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3.4 사회적지지와 대인관계유능성과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성의 매개효과

본 연구는 위기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대인관계유능성, 정서표현성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위해 살펴본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0.23~0.42로 0.1보다 크고, 분산팽창계수(VIF)는 2.9~4.4로 10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지지는 대인관계유능성의 두 개 하위요인(관계형성 및 개시 β=.313, $p<.01$, 갈등관리 β=.290, $p<.05$)에, 또래집단의 지지는 대인관계유능성의 다섯 개 하위요인 모두(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 β=.599, 타인에 대한 배려 β=.640, 적절한 자기개방 β=.677, 관계 형성 및 개시 β=.536, 갈등관리 β=.549, 모두 유의 수준

Table 4.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measured variables (N=130)

		Social support			interpersonal competence					Emotional Expressiveness
		Parental support	Peer support	Teacher support	Relationship formation and initiation	Voicing of rights or displeasure	Caring for others	Conflict Management	Proper self-opening	
Social support	Parental support	1								
	Peer support	0.612***	1							
	Teacher support	0.811***	0.764***	1						
Interpersonal competence	Relationship formation and initiation	0.567***	0.766***	0.711***	1					
	Voicing of rights or displeasure	0.489***	0.735***	0.635***	0.866***	1				
	Caring for others	0.558***	0.786***	0.68***	0.915***	0.835***	1			
	Conflict Management	0.553***	0.759***	0.694***	0.921***	0.861***	0.904***	1		
	Proper self-opening	0.473***	0.733***	0.591***	0.831***	0.842***	0.819***	0.836***	1	
Emotional Expressiveness		0.591***	0.784***	0.678***	0.821***	0.751***	0.827***	0.794***	0.714	1

*** $p<.001$

Table 5. Analysis of mediating effect (N=130)

Step	Variables	B	β	t	R^2 (Adj R^2)	F
Step1	Social support → Emotional Expressiveness	0.7748	0.750	12.838***	0.563 (0.560)	164.8
Step2	Social support → Interpersonal competence	0.837	0.755	13.023***	0.570 (0.567)	169.6
Step3	Social support→ Interpersonal competence	0.328	0.296	4.269***	0.734 (0.729)	174.9
	Emotional Expressiveness → Interpersonal competence	0.657	0.612	8.836***		

*** p<.001

Table 6. Sobel test result for mediation effect

Path between variables			B(SE)a	B(SE)b	Z
Independent variable =>	parameter	=> dependent variable			
Social support	=> Emotional Expressiveness	=> Interpersonal competence	.7747(.060)	.657(.074)	7.279***

*** p<.001

p<.001)에 유의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검증결과 1단계 사회적지지가 정서표현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β=0.75, p<.001)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단계 사회적지지가 대인관계유능성에 유의미한 영향(β=0.76, p<.001)을 주었다. 따라서 독립변수 사회적지지가 종속변수 대인관계유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 2단계 조건이 충족되었다. 3단계에서 사회적지지(β=0.30, p<.001)와 정서표현성(β=0.61, p<.001)이 대인관계유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2단계에서 대인관계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지지의 값이 0.76에서 0.30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지지와 대인관계유능성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성의 부분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검정되었다(Z=7.28, p<001). 즉,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지지와 대인관계유능성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매개효과의 검증결과는 다음의 Table 5, 6과 같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연구결과에 대한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위기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대인관계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교사의 지지와 또래집단의 지지에 따라 위기청소년들의 대인관계유능성 향상에 대해 개입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외향성이 대인관계유능성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는 연구[39]는 외향적일수록 다섯 하위요인에 대한 능력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외향성 성격 특성을 가진 위기청소년인 경우는 외부로 향하는 에너지를 조절하여 적절한 대인관계유능성을 유지하는 심리훈련프로그램의 제공이 요구된다. 반면 내향성 성격 특성을 가진 위기청소년의 경우 정돈된 삶을 장점으로 하되 자극에 대해 소극적이며 내부로 향한 에너지를 외부와 공유하는 대인관계에 초점을 맞춘 심리적 지원 제공에 개입을 함으로써 대인관계유능성이 향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내향성과 외향성을 분리하여 개인내적변인과 관련이 높은 대인관계유능성의 영향을 살펴봄으로 이해의 폭을 넓혔다.

둘째, 정서표현성이 사회적지지과 대인관계유능성 사이에서 부분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검증함으로써 위기청소년들의 정서표현성과 대인관계유능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상담교육프로그램의 활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4.1 논의

본 연구에서는 위기청소년의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정서표현성을 매개로 하여 대인관계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

음과 같다.

주요요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인관계유능성의 하위요인인 '적절한 자기개방'과 '정서표현성'의 관계만 제외하고 사회적지지, 대인관계유능성, 정서표현성 모두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째,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인 교사의 지지는 대인관계유능성의 두 개 하위요인(관계 형성 및 개시, 갈등관리)에, 또래지지는 대인관계유능성의 다섯 개 하위요인 모두(관계 형성 및 개시,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 타인에 대한 배려, 갈등관리, 적절한 자기개방)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지지의 교사지지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유능성의 '관계 형성 및 개시'와 '갈등관리'가, 또래집단의 지지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유능성(관계 형성 및 개시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 타인에 대한 배려, 갈등관리, 적절한 자기개방)이 향상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관계유능성을 높이는 요인 중에서 사회적지지는 대인관계유능성을 높인다는 선행연구[9]과 맥락을 같이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인 위기청소년의 경우도 대인관계유능성에 사회적지지가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친구와 교사의 지지를 많이 받은 아동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적응력이 높았다는 보고[25], 사회적 유능성 발달에 친구의 지지[26], 교사의 지지로는 공동체의 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교사의 역할 관련 연구결과[27]와 일치한다. 또한 교사의 지지 및 또래집단의 지지가 대인관계유능성과 학교부적응의 관계를 조절한다[28]는 연구와 대학생의 애착과 높은 사회적지지, 대인관계유능성의 연구[29]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한편 이신숙[30]은 사회적지지로 감정조절력이 높은 중학생들이 사회적 유능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연구결과도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위기청소년의 대인관계유능성 향상을 위해 또래집단과 교사의 지지가 필요하다. 특히 대인관계유능성의 두 개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지지에 있어서는 '관계 형성 및 개시', '갈등관리'에 대한 개선 및 변화를 위해 교사는 친밀한 관계의 우선적 유지[31]가 필요하며, 교사연수 및 위기청소년을 위한 관련서적 추천이나, 교내에서의 대인관계 간 활동지도 및 조언, 개인의 구별된 시간과 묵상을 통한 통찰의 훈련 등의 지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또래집단의 지지는 대인관계유능성의 다섯 개 하위요인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관계 형성 및 개시'와 관련하여 상대방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며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에 있어서는 자신의 권리와 감정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하겠다. '타인에 대한 배려'는 관계형성의 기초[7]가 되므로 상대방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공감하는 능력 또한 확장시켜야 할 것이다. '적절한 자기개방'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친밀함 정도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적절한 개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갈등관리'에 있어서는 '의사소통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32],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대인관계유능성 전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33]고 하였다.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고 의사표현을 할 때 대인관계유능성이 높다[34]는 연구와 대인관계 향상에 긍정적이라는 주장[35], 위기청소년의 사회적 기술과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시켰다[36]는 연구결과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한편 전문심리상담기관을 통하여 위기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반영하고, 또래집단의 지지를 연계하는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등 세분화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정책운영 등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개입 및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3단계 매개효과 검증과 Sobel 검정 결과, 위기청소년의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대인관계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표현성의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위기청소년의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높아지고, 유의미한 정(+)적 정서표현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유능성이 향상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위기청소년의 지각한 사회적지지는 대인관계유능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매개변인인 정서표현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인관계유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대인관계의 형성과 유지과정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에도 정서표현성이 이러한 대인관계유능성을 견고히 하는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14,15]과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위기청소년들의 대인관계유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교사와 친구의 지지에 중점을 둔 사회적지지 및 정서표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위기청소년의 대인관계유능성 향상을 위한 멘토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즉,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서표현성 변인은 대인관계에서 정서적 지지를 얻으며 개인이 맺는 대인관계 양식의 중요한 특성으로 그 관계의 질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37,38]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본 연구 결과

역시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지지가 정서표현성을 통하여 긍정적인 대인관계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2 제언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가 대인관계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위기청소년의 대인관계유능성에 대한 이해와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사회적지지의 대상을 가족과 또래집단, 교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지지원의 특성에 따라 지지유형을 확대하여 위기청소년에게 다양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정서표현성이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지지와 대인관계유능성에 대해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 완전매개가 아닌 부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표현성 이외에도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지지와 대인관계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지지와 대인관계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인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1] M. S. Kim, *A Study on the Self-Reliance Process of Retired Facilities Youth,* Ph.D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pp. 25-29, 2012.

[2] W. K. Kim, "Gender and developmental comparison of factors related to juvenile delinquency", *School Social Welfare,* No.39, pp.313-345, 2017.

[3] Y. S. Kim, *The effect of integrated counseling program on self-efficacy, self-regulation ability, and empathy ability of at-risk youth*, Ph.D dissertation, Seoul Venture University, pp.16, 2020.

[4] S. A. Park, O. C. Choi, "A Study on the Posttraumatic Growth Experience of Adolescents who were Discharged from Child Care Institutions",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Kyungsung University*, Vol.34, No.2, pp.127-153, 2018.
DOI: https://doi.org/10.18859/ssrr

[5] M. K. Jung, "The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Social Compet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Regulation in Adolescents and Life Satisfaction", *Youth Studies*, Vol.21, No.12, pp.49 - 72, 2014.

[6] H. K. Kim,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Accept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Adolescence's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Feb. 2019.

[7] N. R. Han, D. G. Lee,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n Korea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22, No.1, pp.137-156, 2010.

[8] E. Diner, S. Oisho, R. E. Lucas,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Oxford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Vol.2, pp.187-194, 2009.

[9] H. J. Kim,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Gratitude Dispositionon Interpersonal Competence of Undergraduate Students*, Master's thesis, Hoseo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5.

[10] G. P. Ho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SNS Addiction Tendency and Their Interpersonal Problems: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37, No.1, pp.34-67, 2017.
DOI: http://dx.doi.org/10.15709/hswr.2017.37.1.34

[11] M. H. Park,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Competence in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A Mediating Effect of Career Motivation",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8, No.2, pp.41-63, 2015.

[12] H. S. Friedman, L. M. Prince, R. E. Riggio, M. R. DiMatteo, "Understanding and assessing nonverbal expressiveness: The affective communic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39, No.2, pp.333-351, 1980.

[13] A. G. Halberstadt, J. Cassidy, C. A. Stifter, R. D. Parke, N. A. Fox, "Self-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context: Psychometric support for a new measure", *Psychological Assesment*, Vol.7, No.1, pp.93-103, 1995.
DOI : http://dx.doi.org/10.1037/1040-3590.7.1.93

[14] E. H. Jang, D. G. Lee, "The influence of mothers posi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as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 impact it has on their social competence : Emotional clarity and emotional expressivity as mediators", *Studies on Korean Youth*, Vol.25, No.3, pp.5-38, 2014.
DOI: http://dx.doi.org/10.14816/sky.

[15] Y. S. Kang,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expressivenesson empathy in middle school student and the quality of their peer relationships", *Studies on Korean Youth*, Vol.25, No.2, pp.4~45, 2014.
DOI: http://dx.doi.org/10.14816/sky.2014.25.2.4

[16] D. Buhrmester, W. Furman, M. T. Wittenberg, H. T. Reis,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5, No.6, pp.991-1008, 1988.
DOI : http://dx.doi.org/10.1037/0022-3514.55.6.991

[17] E. J. Choi,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f University Students*, Ph.D dissertation, Gyeonggi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20.

[18] P. W. Nolten,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social support:The development of the student social support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in, 1994.

[19] J. M. Boo, *Ecological Variables Affecting the Online-Game Flow and Addiction of the Youth*, Ph.D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7.

[20] Straus,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 The conflict Tactics (CT) Scal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41, pp.75-87, 1979.

[21] H. J. Kim, *The Impacts of Social Support upon adolescent's Psychological Well-being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personal traits and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Ph.D dissertation, Chosun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6.

[22] J. J. Gross, O. P. John, "Revealing feelings: facets of emotionalexpressivity in self-reports, peer ratings, and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2, No.2, pp.435-448, 1997.

[23] C. H. Hong, G. S. Han, "Development and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Emotional Expressivity Scal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21, No.4, pp.133-148, 2007.
DOI: http://dx.doi.org/10.21193/kjspp.

[24] E. S. Choi,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ldiers' Ego-Identity and Mental Well-being*, Ph.D dissertation, Sangji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7.

[25] S. M. J.,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self-concepts on social competence that children perceive*,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 2005.

[26] M. J. Kang, K. S. Jeun, "Children's Social Support and Perception of Self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16, No.1, pp.197-210, 1995.

[27] L. G. Katz, D. E. MaClellan, Fosteri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he teacher's role,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1997.
DOI: http://dx.doi.org/10.1016/S0885-2006(99)80045-3

[28] N. H. Kim, *The relationship of Emotional abuse and neglect at home and School maladjustment:Testing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Teacher&peer-support*, Master's thesis , Kangwon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020.

[29] Y. J. Cho,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 attachment, automatic thinking and social support on interpersonal competence*,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5.

[30] S. S. Lee, "The Effects of Middle School Students' Self-Regulation on Their Social Competence -with moderating effects analysis according to degre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16, No.4, pp.247-267, 2014.

[31] K. A. Jeon, "The Effect of Childrens Peer-Relationship and Teacher-Child Relationship on Social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12, No.5, pp.659-668, 2003.

[32] H. S. Sim, J. H. Wang, "The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 Social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 Solving of the Elementary School Chidre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13, No.1, pp.163-175, 2001.

[33] H. J. Koo, "The Effects of Communicative Competence,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Family Strengths on Interpersonal Competence of University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9, No.8, pp.224-239, 2019.
DOI: https://doi.org/10.5392/JKCA.2019.19.08.224

[34] S. R. Mun, *The Mediation Effect of Emotional Exp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ve Competence in University Student*,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016.

[35] J. Y. Seo, *The Mediating Effects of Anger Expression Styl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etences for communication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2016.

[36] Y. S. Yu, H. J. Jung, "The Effects of Social Competence Program on the Social Skills and International Relationship for the at-Risk Youth in Wee Center",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Vol.19, No.1, pp.43-61, 2012.

[37] J. w. Han, *Effect of emotional expression on health and subjective well-being*,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1997.

[38] J. H. Kwon, *Clarity of emotional recognition and relation to emotional expression and interpersonal issues*,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06.

[39] J. H. Ha, *The Effects of Self-diffentiation and Other-Acceptance on Emerging Adulthood's Interpersonal Competence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Introversion-Extroversion*,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Committee, 2015.

송 경 미(Kyeng-my Song) [정회원]

- 2017년 3월 ~ 현재 : 큰사랑드림 컨텐츠연구소 연구원
- 2018년 3월 ~ 현재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석 · 박사과정

〈관심분야〉
교육, 융합컨텐츠

조 성 제(Sung-je Cho) [정회원]

- 1997년 2월 : 홍익대학교 대학원 전자계산학과 (이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교수

〈관심분야〉
데이터베이스, 문화콘텐츠, 교육